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СА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23년 2월 10일 (금) (음력 1월 20일) Пятница 10 февраля 2023г. № 5 (1202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지난 4일(토) 한인문화센터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주최로 펼쳐진 음력설 기념행사 중 <미스, 미스터 음력설> 선발대회. (이예식 기자 촬영)

## 리마렌코 주지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출장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방문해 сахалин의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주지사는 장병들에게 국가 공로상을 수여하며, 최신 드론을 전달하고, 비공식석상에서 참전자들의 복무여건과 일상생활을 검토하며 질문들에 답했다. 또한 돈바스를 방문해 сахалин의 참전자를 비롯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 대행인 제니스 푸실린과도 만남을 갖고, 후원받는 지역들에서 일련의 사회적 시설들을 시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조치로 сахалин주가 사흐초르스크시를 후원하게 됐다. 현재 сахалин주는 이 지역에 공공 제반시설을 비롯해 주택과 사회적 시설들의 복구를 돕고 있다. 복구활동을 위한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 여름에는 사흐초르스크의 아동 스포츠단이 сахалин를 방문하여 이들을 위한 여러 스포츠 및 오락 행사가 сахалин에서 조성됐다. сахалин의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전 러시아 표준 교육과정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으며, 도네츠크 정부도 사회적 상징망에 따른 сахалин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출장 일정으로 주지사는 사흐초르스크의 1차 진료소와 예술학교를 시찰하고, 향후 2년에 걸친 주요 사회적 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3년에 걸친 사흐초르스크 지역 복구를 계획했다. 과제의 일환으로 모든 설정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다

## 1천여 명의 сахалин 학생들에게 무료로 스키와 스노보드 교습

2월 7일(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파르코와 산에서 <스키 타고 학교로> 지역 7번째 동계 기획 개최식이 열렸다. 이 기획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와 네벨스크, 흠스크, 토마리 지역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수업은 3월 말까지 진행된다.

"몇 년 전에는 1백여 명의 학생들과 이 기획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첫 시즌에는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수업만 진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스노보드 종목 수업이 기획에 들어갔다. 이 기획이 결실을 맺어 참가자들 중 누군가가 이 스포츠에 매혹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сахалин주 스포츠부의 체육문화 및 스포츠국 수석 고문인 율리아 스바타야가 말했다.

초등학생들 받은 경험이 많은 강사가 교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과외수업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첫 수업에서 안전기술과 기초적인 체조 몇 가지를 익혔다.

각 시즌 끝무렵에 기획 참가자들은 각자 배운 기술을 경기로 선보이며, 경기 우승자들은 알파인스키 헬멧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기획을 실시하면서 сахалин의 27개 학교에서 1만 명의 학생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익힌 것은 기억할 만하다.

сахалин주에서는 이외에도 <교류스키>(가라테) 교실, <삼보 교실>, <내가 난다>, <유치원에 스키>, <유치원과 스포츠> 등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대중화하는 기획들이 실시되고 있다

## сахалин주에 암 환자 의료지원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 그룹 조성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сахалин의 암 환자 그룹과 만남을 가졌다. 환자들은 주 병원 암병동에서 치료와 필요한 물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과 정기적 만남으로 암환자들의 불만스러운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첫 회의 결과 중요한 일련의 결정이 채택됐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주민이자 진료소 소장인 마리아 올라노와는 진료 편성과 치료 시 재할, 진정한 지원으로 환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로 주지사 산하 실무 그룹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안했다. 마리아 소장은 실제로 다양한 환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

"암 환자들 지원은 특수 물리치료에만 제한돼 있지 않다. 실제로 환자들에게서 물리치료의 질적인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종양 병동에서는 모든 종류의 치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 수급, 재활의 기회, 병실의 편리함 등에 대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하고, 환자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리아 올라노와 소장이 말했다.

주지사는 다양한 환자들의 상태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에 경청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주민 예카테리나는 병동 환자들 틈에 박힌 병실에서 나와 자수 등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서로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다른 환자는 암 진단 전문가에게 진료예약 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다. 또는 연방 진료소 방문 시 교통 요금을 자비로 내고 갈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주지사는 "오늘 여러분에게서 들은 모든 요청과 제안사항을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적 통신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 전문 의료기관의 환자들을 향한 관심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암환자들을 위한 진료 접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보건부에 지시하겠습니다. 진료소 방문 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배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자들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부인과 종양 환자는 설문지 작성으로 암병동 방문 조건을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설문조사에 의료진의 태도, 치료, 영양 공급 등 몇몇 평가에 따라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암환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설 문제에 공감하며 극동 수석 전문의들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암환자나 이들의 친지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그룹이 긴급전화번호를 개설해 문제와 제안사항을 전화 +7 914 759 30 80, +7 924 288 66 99 로 문의할 수 있다.

## сахалин의 37 가구에게 새로운 임대주택의 열쇠 수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사흐초르스크 구역에 현대적인 새 주택이 운용됐다. 더욱 쾌적해진 임대 아파트는 공적 분야 및 지역에 필수 전문직 대표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임대 아파트의 임대 비용은 평균 시장가보다 절반 정도이다.

우글레고르스크시 표도르 필린 시장 직무 대행은 "또 하나의 주택 운용은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축하할 일이다.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 준공 덕분에 우리는 지방에 꼭 필요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입주를 축하하며, 여러분의 가내에 사랑과 우정과 편안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임대주택은 현대적인 에너지 절약 공법으로 건설됐다. 그래서 방안의 온도는 4계절 내내 쾌적하게 유지되며 지진 강도 9도에 버틸 수 있는 건물이다.

국가 지원정책의 하나를 이용해 сахалин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가 주택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되거나 어머니 기금을 통해 아파트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면, 주택 조건 개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임대주택은 сахалин주 정부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원으로 сахалин 주택금융공사가 건설하고 있다. 이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서 4번째 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주로 청년 전문가와 특수 직종 전문가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건설됐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앞으로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들을 보길 바란다."고 주택금융공사의 엘레나 본다레와 사장이 말했다. 코르사코브에는 또 하나의 임대주택 1동에 입주가 이뤄져 24가구가 열쇠를 받았다. сахалин 주택금융공사 보유 임대주택은 сахалин 전 지역에 약 2,600채이며, 또한 1,200가구가 들어설 75,000m<sup>2</sup>의 주택이 건축 중이다.

<b>새고려신문</b>	<b>2023년 신문 구독 계속</b>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b>101루블</b> 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체부라쉬카' 유치원을 찾아 안한연 선생으로부터 한국어를 즐겁게 익히는 아이들

지난 화요일 오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루고워예에 있는 '체부라쉬카'유치원을 찾아갔다. 목적은 그 유치원의 이중언어 그룹 '로드니초크'(שמ) 취재였다. 유치원의 아이들은 러시아어로 수업도 하고,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안한연(안학용) 한국어 교사가 나를 입구에서 마중하고 원장실로 안내하였다.

유치원에서 44년째 근무하고 있는 야누셴스카야 로자 니콜라예브나 원장이 반가이 맞이하며 한국어 교육 현황을 소개하였다.

'체부라쉬카'유치원은 현재 11개 그룹이 있고 아이 278명이다. 한국어는 이 유치원에서 2011년부터 가르치고 있다. 그때 원장이 루고워예 제30학교에서 이미 오랫동안 활약하신 안한연 선생을 초빙하여 한국어 수업을 부탁했다. 그 당시 수업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에 원장이 유치원 이중언어 연수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치원들을 돌아보고 '체부라쉬카'유치원에도 정기적으로 이중언어 반들을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

현재 유치원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그룹, 중국어 이중언어 그룹, 영어 이중언어 그룹, 그리고 일본어 이중언어 그룹을 만들어 '이중언어 환경'



을 익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전문 교육자를 구하는 것인데 야누셴스카야 원장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언어 중 한국어는 이 유치원에서 가장 오래된 수업이다.

안 선생을 통해 유치원은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여러 임기의 원장들이 유치원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도 자주 찾아오곤 한다. 작은 선물도 전해주고 공연하기도 한다고 했다.

교육원을 통해 유치원을 위한 한국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찾고, 아이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공식 교육자 대표단도 방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강원



도 교육청 대표단이 공식프로그램 일환으로 유치원을 방문해 한국어 수업 현황을 보고 많이 만족했다."고 로자 니콜라예브나 원장이 말하였다. 그는 한국어 채택학교 교장과 함께 교육원을 통해 사할린대표단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

유치원이 사할린한국교육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컴퓨터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 야누셴스카야 원장은 유치원에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교육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현재 '에트노스'학교의 위올레타 클림코와는 1주일에 두번 '로드니초크'반 유치원생들에게 장구를 가르치

고 있다. 그런 정보를 듣고 나서 '로드니초크'그룹을 찾았다.

다채로운 한복을 입은 5-6세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다. 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였다.

이날 취재하러 온 기자를 위해 '공개 수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 소개도 하고, 친구가 누구인지 답하기도 하고, 놀이하면서 산수를 익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채소와 과일도 한국어로 하는가도 얘기했다.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게임, 늑대와 토끼 이야기 놀이를 했다. 아이들의 활동력이 대단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한

국어를 즐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 한민족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뛰며, 놀며, 앉아서 이야기하고 손발짓을 하는 귀여운 행동을 하고, 북 주머니에서 종이 북주머니를 꺼내면서 어떤 북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뻐하는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이 수업에 그룹 담당 선생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안한연 선생을 돕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도 익힌 것 같았다. 아스타프치크 스웨틀라나 교원의 경우 이미 3번째 이중언어(한국어) 그룹을 담당하고 있어 당연히 한국어에 많이 익숙해 있었다. 안 선생에 따르면 아스타프치크 교원의 딸들도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은 안한연 선생이다. 올해 그가 한국어를 가르친 지 30년이 된다. 작년에 만 70세를 맞이한 그에게는 한국어 교육은 그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사할린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교육 시스템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그에게 포로나이스크 김나지야 교장선생이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이 김나지야에서 그는 5년간 활약했다.

(7면에 계속)

## 이 모 저 모

### '사할린의 상어' 대중 자선 빙상대회

'사할린의 상어' 하키팀이 '아레나 시티' 종합 빙상장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방문객들과 함께 대중 빙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런 행사는 처음으로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 350여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빙상장에 모인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모야진 모든 성금들은 특수군사작전 사할린 참전자와 그 가정을 돕기 위해 쓰인다. 이 행사는 '예진나야 로시야(통합 러시아당)'과 사할린주의 통합 러시아 청년 근위대가 특수군사작전 장병들을 돕길 원하는 사람들의 힘을 연합하고 조정의 역할을 하는 '동참' 기획의 일환으로 후원한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45분의 빙상 경기 3회와 사진촬영 및 사진에 사인 받기, 다과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며, 하키팀 선수들과 각각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고 본다. 이 행사는 깊은 애국심 고취시켰다. 현재 세계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국을 수호하는 우리의 주민들과 동포들을 지원하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자선행사를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중 빙상대회 참가자인 세르게이 파노브가 강조했다.

###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впервые организова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массовые катания

Хоккейна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организовала массовые катания на льду комплекса "Арена Сити" с жителями и гост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ое соб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первые. Он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рамка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и собрало на льду около 350 сахалинцев. Все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нужды островитян, несущих службу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ей.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МГЕР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объединять и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усилия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помочь бойцам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итян ждали три сеанса катания по 45 минут, фото и автограф-сессии, чайный стол. Пообщаться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мог каждый.

— Считаю, что сегодня для наших жителей организовали замеч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но с глубоким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смыслом. В столь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в мире, ва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их земляков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Родину, быть сопричастным. Считаю, что таки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акции нужно проводить как можно чаще, — отметил участник массовых катаний Сергей Панов.

### 2월 23일 나이바 강가에서 열리는 <사할린의 얼음- 2023>에 참가자 모집

돌린스크 지역 나이바 강에서 제12회 <사할린의 얼음-2023> 아마추어 얼음낚시 축제(0세 이상)가 열린다. 2월 23일 행사에서는 전례대로 단체전, 남성과 여성 낚시 바이애슬론 경기가 진행된다. 축제에서 다양한 부문의 상과 후원 측이 제공하는 경품, 상호작용 경연, 야외 요리를 대접할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상품은 스윙프 버기(늘 지대를 횡단하는 자동차)이다. 참가 등록은 2월 7일(화)에 시작한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낚시의 행운을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행사에서는 가족과 아동 단체팀을 비롯해 참가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안한 거처도 마련하여 장애인팀의 참가를 접수하고 있다.

경기 규정에 따라 각각 1팀에 4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첫 경기에 출전한다. 경기 내용은 되도록 '나와가'를 많이 잡고, 나와가 길이는 19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낚시 적격 크기이다. 이 단계에서 30분이 주어지는데 낚시가 잘 안 될 때는 다음 경기구역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회가 많은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도록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다.

잡은 물고기를 저울에 단 후 선정된 50팀만이 가장 불 만하고, 열기가 더해지는 <어촌의 바이애슬론> 2단계로 진출하게 된다. 여기서는 각 개별전을 치르게 되는데 참가자들은 차례로 4개의 얼음 구멍을 뚫고, 다음 첫 구멍에서 물고기를 낚아야만 다음 구멍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경기의 우승 상금은 약 50만 루블리며, 축제 주최 및 후원으로부터 많은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남성 <낚시 바

이애슬론> 부문 경기의 주요 상품은 사할린주 수산협회가 제공하는 '스윙프 버기' 자동차이다.

올해는 상품가치가 큰 상품들이 주어지는데 지난해에 처음 경기 종목이 시작된 <여자 바이애슬론> 부문은 참가자들에게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 종목의 우승자에게는 상금 5만 루블리가 주어지며, 받을 귀한 상품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물고기>, <가장 노련한 참가자>, <가장 다채로운 팀>, <여성팀>, <아동팀>, <가장 협동이 잘 된 팀> 부문들에 상품도 마련되었다.

단체전 참가 신청서 접수는 2023년 2월 7일부터 시작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22일은 19시까지 하며 전화 문의는 8(4242)72-25-76와 24시간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 2023" соберет участников 23 февраля на реке Найба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 2023" (0+) пройдет уже в 12 раз на реке Найб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23 февраля по традиции пройдут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мужской и женский биатлон.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изы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лотереи от спонсоров, интерактивные конкурсы, угощения полевой кухни.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снегоболотоход.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стартует 7 февра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ытать рыбацкую удачу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сборные семейные и детские команды, а также команды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которых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комфортное пребывание.

По правилам состязаний, первыми на старт выйдут участники в составе команд — по 4 человека в каждой. Их общая задача — пойм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наваги, в зачет идет только рыба длиной не менее 19 сантиметров — это промысловый размер. На этап выделяется полчаса, в случае плохого клева время может быть добавлено, чтобы шанс пройти в следующий круг состязаний был у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После взвешивания 50 команд с лучшим уловом проходят во второй, самый зрелищный и азартный этап —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Здесь уже каждый за себя. Участники бурят поочередно 4 лунки, к следующей можно переходить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тянул рыбу из первой.

(8면에 계속)

### '에트노스'학교, 음력설 행사 개최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과장 신 율리아)의 주최로 음력설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예술과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리로 준비했지만 실내에는 조부모들과 그외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다.

이날 모두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유아들은 팀별 게임을 하고, 학교 학생들은 '미스(또는 미스터) 음력설 2023' 경연대회의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경연대회에 나간 학생들은 자기 소개를 하고, 인터뷰 질문에 답하며, 전통 한복의 현대화된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음악과 문학에 대한 창의적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미스 음력설'로 신선미 학생을 선정했는데 이 학생은 관객들에게도 인기상을 받았다. 아라온 유진과 코르니엔코 아르세니는 이 경연에서 2등을 하였다.

이날 학부모들과 조부모들은 무대에서 펼쳐진 멋진 공연(무용, 북, 노래 등)을 즐기며, 다양한 과자를 비롯한 케이크,



사랑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에 참여했다. 방문객 모두 '에트노스'가 준비한 명절행사가 따뜻하고 즐거웠다고 호평했다. (취재: 이예식 기자)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태산이 높다 하되(태산가) /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되만 높다 하더라.

"얼마 전 설을 지냈지만 그래도 연초를 맞아 조선 중기의 시를 들춰봅니다. 1월이면 모두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올 한해 다들 어떤 목표를 잡으셨나요? 올 여름 휴가 여행지는 정하셨나요? 러시아에 방문한 뒤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러시아인들의 삶 중 제일 부러워했던 건 휴가였어요. 여름 휴가가 대략 한 달 남짓 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던 것. 3주 가량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물론 한 달이 넘는 휴가 찬스도 다양하다고. 그런 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야 워낙 한량이니 집필을 핑계로 어쩐지 지금도 휴가처럼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른 이런 일상을 변명하자면요. 정말이지 '창작의 시간'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나 해야할까요, 때로는 피가 마르는 느낌이라니, 아무튼.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기 서울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적어도 여름 휴가가 참 짧죠, 가혹하리만치. 교사 또는 대학교수라면 예외입니다. 방학을 이용해 휴가 일수가 제법 많이 잡히실 테니.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직업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적지요. 그래서인지 이제 막 입사한 젊은 친구들은 3박 4일, 4박 5일 남짓한 휴가를 어떻게든 알차게 지내려 주말 끼고 월차 쓰고 해서 6박 7일 야무지게 해외로 나갔다 오곤 하지요. 그래서 생긴 한국인들의 여행 일정을 보면 짠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기 훈련의 연속이거든요. 새벽 5시 기상. 이른 새벽 눈 비비고 일어나 부랴부랴 관광지 가는 겁니다. 맛집과 인스타 배경으로 점 찍은 훌륭한 명소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인지 벨기에인들은 새벽이면 수많은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인을 대번에 알아본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재미있더라고요. 동이 뜨기 전 어둠한 새벽, 단체로 무리를 지어 관광 버스를 타는 동양인들이라면 백이면 백 한국인이더라고요. 새벽부터 난리 법석인 거지요. 아침은 버스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곧 도착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겁니다. 더 많은 명소를 돌기 위해 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고 또 도는 거죠.

이런 극성이나 결국 세계화에 성공했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겠지만, 제 눈에는 씁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쉬는 날이 짧다 보니 생긴 '익살극' 같아서 그런 걸까? 이마저도 비정규직은 휴가가 아예 없기 마련이니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꿀벌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당신은 날 울리는 땀벌, 땀벌.' 죄송합니다, 다시! 함부로 전체 부정의 오류를 범하면 안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여행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낮선 도시에서 한 달 살기' 이런 도전도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정말이지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 놓고 떠나는 걸 테니, 예외가 많겠지요.

어쩌다 여행에 관한 얘기가 길었습니다. 설 날이 두 주 지났으니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운동 중일 테고,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기필코 만점을 받겠다는 학생들께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요. 일상이 큰 파문 없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으실 테니, 이 역시 물론 따뜻한 응원을!

성취하기 힘든 걸 목표로 잡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 텐데요. 이 역시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리 힘든 계획일 지라도 도전이란 근사한 걸 테니. 삶이란 너무나도 예측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좀 더 철학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 기원을 연구하곤 하지요. 우주의 탄생을 알 수 없으니, 누군가는 종교의 힘을 빌려 예의 그렇게 설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좀 다르죠. 짝어 먹어 봐야 된장 맛을 아는 분들일 테니. 빅뱅이 일어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코딱지보다도 작은 은하계, 그 중에서도 더 작은 태양계, 거기에서도 태양을 축으로 에너지를 얻으며 생명을 영위하는 우리 지구인을 언급하며 우리 지구인들의 자존감을 늘 죽이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원과 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걸 테니, 정말이지 '시간'과 '우주'는 알다가도 모를 미지의 세계입니다.

조선시대 양사언 문인께서는 일찌기 이를 통달하셨나 봐요. 그 래봤자 다 한걸음 한걸음 옮기다 보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 엄살 부리지 말고, 뭐가 됐든 정진하라고 일갈하시네요. 그걸 누가 모르나 뭐. 그게 잘 안되니까 인간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마음을 다잡으려고요. 아직 뭐 연초니까. 저녁에 야식 그만 먹고 이제 진짜 살 빼야지, 흐음."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러시아 과학자의 날

2월 8일(수)은 과학계 종사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날은 과학과 연구활동에 일생을 바친 교수와 학자, 학생들이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일의 주 목적은 과학적 발전에 사회공동체의 관심을 끄는 데 있다.

사할린주 통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다.

사할린주에서 과학적 연구와 개발은 14개 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 단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1개 단체, 포로나이스크에 1개 단체,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 2개 단체가 있다. 2021년 기준 과학적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수는 616명(2020년 - 351명)이며, 이 중 318명은 연구원(2020년 - 351명)이다.

2021년 기준 주요 연구 부문으로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에서 265명(83.3%)이 과학적 연구와 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 인문과학, 농업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53명(16.7%)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중 498명이 고등교육 이수자들이고, 70명은 중등 직업교육자이며, 그 외 48명이다.

과학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과 업무 수행비가 2021년에는 9억2,230만 루블리에 달했다. 과학적 연구개발비는 11억 루블리에 달했다.



##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한 사할린 장병들에게 가족들의 소포와 편지 전달

사할린 참전 장병들 지원문제로 활동하는 여성 사회단체 회원들이 돈바스 지역에 100kg 이상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는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주문한 것들로 여기에는 군복, 기계, 약품, 식품들이 포함됐고, 더불어 중요한, 가장 고대하던 수화물은 자녀들이 보낸 편지였다. 여성 사회단체는 소중한 물품을 지역 행정부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물품들은 군대로 이송돼 소대에 전달된다. 돈바스에 방문차 머무는 여성 단체는 장병들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여성들과 어머니들로 구성된 6개 그룹이 지난해 12월부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여기서 그들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고, 장병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7번째 팀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할린 참전자들을 위한 물품을 가지고 떠난다. 그중에는 따뜻한 속옷과 털양말도 있다.

참전자들의 어머니와 아내들로 구성된 여성 사회단체는 각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할린 여성들 스스로가 조직했다. 주지사는 군 지도부와 수반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조성한 후 이를 지원했다. 이 단체는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동원병과 자원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 당국 및 주민들과 상호협력하고 있다.

## <스포츠 - 생활의 규범> 연방기획, 사할린주에서 적극 시행

2022년에 5개 사할린 올림픽 예비 스포츠학교를 위한 비품, 장비, 준비물 등 종합 300세트 이상을 구입했다.

<인구통계학>국가기획인 <스포츠 - 생활의 표준>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스포츠센터 현장에 기술장비들이 개선되었다.

올림픽 예비 스포츠학교에 현대적 전자 판정기가 그레코로만 레슬링 종목에 적용되었다. 다른 스포츠학교들을 위해서는 경기 진행을 위한 장비와 여러 훈련 장비 - 러닝머신, 멀티 체력단련기구, 레그 프레스 등 - 가 마련됐다.

"재정적 지원으로 스포츠 훈련 장비들을 갖추어 설치할 수 있었다. 능률적으로 완성된 작업을 보고 있다. 사할린에서 전문적인 스포츠 훈련은 더욱 명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더욱 쉽고, 편안해졌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아르ჰ름 포드쉬워로브 장관이 말했다.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스포츠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다. 2022년 말에 고르노자위드스스코예 마을에는 처음 일반 종합체육관이 개장됐다. 이곳에서 가라테, 권투, 농구, 유도, 배구 훈련을 진행하고, <사할린 장수> 기획의 참가자들을 위해 배드민턴과 공공 체조 교습이 조성될 전망이다. 앞으로 종합 체육관은 토마리의 일린스크예 마을과 흠스크 지역 체호브 마을에도 건설할 예정이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аздник удался на славу...

4 февраля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гуляние в честь празднования Восточ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подготовленное и проведенное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ДШИ «Этнос».

Начался праздник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го видеоролика на экране и приветствия ведущего.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еще до начала мероприятия зал был уже наполнен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гост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не только учащиеся и их родители.

Ни один гость, пришедший на праздник, не остался в стороне. Дети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играх, соревнуясь между собой, чья команда самая сильная, самая ловкая и быстрая, получали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Дети более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активно «болели» и голосовали за участников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Мисс (мистер)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2023».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несмотря на волнение, с большим энтузиазмом представляли свои визитные карточки, бойко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блиц-опроса, очень креативно представляли свои вид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и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ого образа корейск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стюма, а также проявляли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в различ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 литературных жанрах.

По решению членов жюри главный приз достался учащейся Син Сон Ми, которая стала «Мисс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2023». Ей



же достался и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Звание вице-мисс (мистер) разделили между собой Араон Юн Джин и Корниенко Арсений.

Более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родители, бабушки, дедушки,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также не скучали, наслаждались праздничным концертом,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икторинах и играх, гуляли по ярмарке. Ярмарочные столы «ломались» от изобилия ассортимента. Нужно отдать должное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не только напекли пирогов, кексов и т.д., но и творчески подошли к оформлению столов.

Праздник удался на славу, не оставив равнодушным никого.

Юлия СИН  
Фото: ЛИ Е Сик

## ПРИГЛАША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10 февраля 2023 г. в 18.00** на встречу с сахалинским историком **ЮЛИЕЙ ИВАНОВНОЙ ДИН**

Тема встречи: **"О жизни в науке и науке в жизни"**

Место встреч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онференц-зал, 9 этаж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С 17:30 до 18:00 - кофе-брейк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1979 г.р.**  
Окончил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стория" в 2008 г.

Магис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Сеул), 2018 г.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иссертац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роблемы интеграции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1945-2010 гг.)", 2016 г.

Окончила докторанту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РАН в 2022 г.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статью Ким Тхе Ик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представите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ладимиру Николаевичу небезразличны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Он хорошо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находясь сейчас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решил осветить одну из проблем –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Автор много цитирует высказы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в том числе профессора пра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ой Генг Ок.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это люди, вынужденные в своей жизни четырежды менять гражданство.*

Бок Зи Коу

Бок Зи Коу, профессор, основатель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очно выразил мытар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вопросе гражданства. Мобилизованные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из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 стали подданными императора Япон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войны (Договор Сан-Франциско, 1952 г.) лишились этого статуса и долгое время остав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затем стали гражданами СССР/РФ, далее, переехавш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тали ее гражданами. Выезжающи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 программ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алее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получают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упрощенной форме. А каков гражданский статус по Закон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программу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могут 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уч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аботах Цой Генг Ок (최경옥 교수), бывшего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Енс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н подробный анализ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и и правовом статусе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гулирующих вопросы граждан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вопрос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ый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возникает при прочтении темы этой статьи – насколько эта тема актуальна и что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в этом вопрос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звестный факт того, что на принят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ушло 15 лет – первое слушание в парламенте РК состоялось 8 ноября 2005 г., а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в мае 2020 г. не дает оптимизма,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что-то изменится. Вопрос призн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так и до конца нерешенной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1945 г. прошло 77 лет,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масштабе – это небольшой срок.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робкие шаги были сделаны спустя 44г с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 в декабре 1989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поездка группы в 23 человека в РК через Японию. С 1989 по 2015 г. программу встреч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и репатриации финансировала Япония. РК долгое время уповала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Японии и только в 2020 г. приняла, наконец,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который вызвал много критики за продолжение линии Японии на максимальное сокращение лиц, подпадающих под действ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ставив временной барьер «15.08.1945 г.» и продолжая создавать разрозненные семьи.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призна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вопросом историчес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ое долгое время бездействовало в вопрос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каз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годы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Признание права гражданства должно состояться независимо от пресловутой даты рождения 15.08.1945 г.

Рассмотрим подробнее роль и действия Японии и Кореи в вопросе возв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по окончании войны.

Историк, к.и.н. Дин Ю.И. в статье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мечает, что «в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о проблемах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ы, вопрос о репатриации занимает одно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мест. При этом доминирует практически одинаковый взгляд на эту проблему – вина за неосуществленную репатриацию возлагается на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Дин Ю.И. в этой же статье, анализируя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делает вывод: «Автору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ошибочным обвинение только Японии в несостоявшейся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кова бы ни была позиция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ник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высказать эту позицию им не представляли.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СССР и США, как главные победители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и гаранты послевоенного мироустройства, решали все вопросы о репатриации населен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1945-50 гг.»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Кореи, 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15.08.1948 г. и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репатриации с Сахалина не могло влиять на ее проведение.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факт бездействия уж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исанный в статье Сун Дюн Мо (성점모),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н писал об известном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це Пак Но Хаке (박노학회장), который репатрировался в Японию и вел там широ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озглавив Общество по репатриации интернир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держка из статьи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олгое время откладывавшиеся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Кореей и Японией начались в 1965г.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к Но Хак обратился к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 просьбой включить в повестку переговоров вопрос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но получил отказ. Пак Но Хак испытал глубок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и боль, ведь он так рассчитывал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воей родины. Находясь в отчаянии, Пак Но Хак не знал, что предпринять. Решил обратиться к Цой Гю Ха, ставшему в то время уже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реи. Но министр ответил ему, что не нужно было приезжать в Корею из-за этого вопроса, занимайся этим в Японии. Нет слов, чтобы описать отчаяние Пак Но Хака.»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1965 г. «Базовые принцип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стороны обсуждали вопросы выплаты Японией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годы колонизации Кореи.

В 1965 г. была упущена ре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жно согласиться с доводами о том, что в тот период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стояла масса более срочных проблем и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г затянуть получение компенсации 800млн. долларов, в которых нуждалась РК.

Но сегодня Корея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мира, может и обязана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как подобающей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й стране. Такое мнение звучит в публикации профессора пра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ой Генг Ок (최경옥 교수), которое мы далее вкратце, в рамках газетной статьи, рассмотрим далее.

Для поним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стату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отре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вне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в год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В период колонизации Япония объявила все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подконтро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дданными императора и проводила политику натура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 давала им японские имена, детей обучали в школах только на японском языке.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в Сан-Франциско в 1951 г. Япония отказалась от всех территорий, находящихся за пределами Япон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и «в 1952 г. по Решению №438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Японии корейцы лишались япон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т.к. Корея стала независим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 цитата Пак Сын Ы, автора работ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Ким Тхе Ик (김태익, 1952 г.р.), г.Москв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тремится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облема возраста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усугубляе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этой связ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ло заняться сбором информации о том, живы ли члены таких семей на Севере. Эта задача включена в четвёртый базовый план активизации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азделёнными семьями,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период с 2023 по 2025 год. Он, в частности, включает такие задачи, как возобновление и активизация обменов между семьями,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военнопленных, похищенных и удерживаемых на Севере, расширение базы обменов, укреп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единства по вопросу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и оказание им поддержки. Помимо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подготовить план обмена с Севером списками живых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скончались 3.647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ах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на Севере.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иходится на людей старше 80 лет.

## РК поможет Турции в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землетрясений

РК окажет Турции экстренную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на сумму 5 млн долларов и направит 110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х работах после разрушительн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военно-транспортными самолётами в Турцию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предметы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7 февра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В Турцию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6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пр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ях и 5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оенны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правки в Турцию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амолёта-заправщика KC-330.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дал указ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аправить в Турцию спасателей и медикаменты. Он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у Турции Реджепу Эрдогану письмо, в котором выразил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трагедией. Землетрясение магнитудой 7,8 произошло 6 февраля в 4:17 утра на юго-востоке Турции. Последствия толчков ощущались в десяти провинциях страны, а также на Северном Кипре, в Ливане, Ираке и Сирии. В 13:24 того же дня на севере Турци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новые толчки магнитудой 7,5. 7 февраля в центре страны произошло ещё одно землетрясение магнитудой 5,3. Погибли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коло 16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нены.

## Хан Док Су: Отношения РК и Японии должны быть нацелены на будущее

Отношения РК и Японии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ся,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будущее, учитывая ситуацию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6 февра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 ходе заслушивания отчётов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е стоит чрезмерно заострять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ах прошло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 о путя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о время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Японии. Хан Док Су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тороны должны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продолжая диалог с жертвами действий Японии в прошлом. Один из депутатов в ходе слушани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шение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без участия жертв мобилизации и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невозможно, поскольку основное требование пострадавших заключается в признании Японией сво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янное. На это Хан Док Су отв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полной мере разделяет позицию пострадавших 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с ними над поиском оптимального пути разрешения споров.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удут преподавать в метавселенной

Во всём мире известн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центры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по всему миру. 7 февраля фонд центров имени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сообщили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нового центра в метавселенно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количества желающих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высок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Сервис доступен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http://ksif.zer.site>).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сентя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коло 10 тысяч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ились в листе ожидания на обучения в центрах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услуги центра в метавселенной повысят доступ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В виртуальном кампусе имеются лекционный зал, зона знакомства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зона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другие контенты. В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сервиса его посетили более 4,5 тыс. человек из 123 стран.

(RKI)

## Памятникам истории нет цены

Сеул, 7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Королевские гробницы Дэрэунгвона, признанн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место в Кенджу,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бесплатный вход для публики, начиная с мая, сообщили власти города.

Парк Дэрэунгвон,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Хваннам-Доне, насчитывае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3 древних гробницы времён династии Силла, которые ежегодно посещают в среднем более 1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Две наиболе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е гробницы — Хвангнам Дэчонг, самая большая гробница в Кенджу, гд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золотая корона королевы и пояс королевы; и Чхонмачонг, где была найдена «Джангни чхонмадо» (изображение Небесного коня на клапане седла).

Обе реликвии объявлены национальными сокровищами, и хотя золотая корона и пояс хранятс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Кореи, картина находится внутри Чхонмачонга, что делает её обязательной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ю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оимость входного билета составляет 3000 вон для взрослых и 1000 вон для детей.

По данным властей города, опрос обществуности, проведенный в конце 2020 года, показал, что 56,9 процента опрошенных поддержали бесплатный въезд в Дэрэунгвон.

Город Кенджу ожидает, что этот шаг привлечет туристов, посещающих главную улицу Хвангридан-гиль или астрономическую обсерваторию Чхонсондж, в районе старог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в Кенджу, помогая оживить экономику города. Город начал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о бесплатном входе с 2021 года.

## Палочка-выручалочка в лице восточного соседа

Сеул, 2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Доходы бюджет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Южной Кореи, наконец, начинаю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после ущерба, нанесенного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флагманским перевозчикам Korean Air и Asiana Airlines удалось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резкое снижение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бюджетные перевозчики, которые в основном летают на ближнемагистральных маршрутах, оказались на грани банкротства.

Но в последнем месяце минувшего год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бюджет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достиг 89,9 процента, превысив даже уровни,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до пандемии. Решающим фактором стало повторное открытие границ Япони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675 рейсов, соединяющих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Кансай, в декабре перевезли 122 583 пассажира.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почти вернулось к докомандемическому показателю в 682 в декабре 2019 год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фактически выросло с 91 014.

Такая же ситуация была и на маршруте Инч-

## Долой маски,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макияж!

Сеул, 5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Универмаг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одят крупные маркетинговые кампании по косметике, поскольку запрет на маски для помещений был отменен с 30 января.

С тех пор, как разразилась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сметические бренды прекратили демонстрации косметики для своих покупателей,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Универмаг Lotte ожидает, что продажи цветной косметики взлетят до небес теперь, когда люди снова могут показывать свои лица. Он уже открыл всплывающий стенд с новыми продуктами в своем флагманском магазине в Согонг-Донге в центре Сеула.

Французский люксовый бренд Yves Saint Laurent предлагает выгравировать имена покупателей на своих изделиях, а покупатели могут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с накрашенной губной помадой в фотобудке.

В филиале Lotte в Джамсиле такие бренды, как Charlotte Tilbury, Estée Lauder, Givenchy, Guerlain и Lancôme,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услуги по диагностике кожи и макияжу.

Универмаг Hyundai предлагает аналогичные акции. Акции для цветного бренда Shiseido NARS проводятся во флагманском магазине в Йеуидо, Сеул, а с 9 по 12 февраля французский Dior открывает всплывающий стенд, где люди смогут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новые продукты.

## Фруктовый вкус корейского алкоголя

Сеул, 5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Экспорт соджу, традицион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алкогольного напитка, увеличился на 13,2 процента в 2022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восстановившись впервые за три года.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обр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ой Кореи, исходящие поставки соджу достигли 93,3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США в 2022 году, резко увеличившись с 82,4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годом ранее.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объем экспорта увеличился на 12,7 процента и достиг 67 104 тонн. Соджу — это прозрачный дистиллированный ликер, изготовленный из зерна.

Экспорт соджу сокращался с момента достижения пика в 97,5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в 2018 году, поскольку пандемия COVID-19 также нанесла серьезный удар по потреблению 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во всем мире.

Зарубежные продажи других видов корейских ликеров, включая соджу с фруктовым вкусом, достигли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в 88,9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в 2022 году, что на 9,9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добавили таможенные данные.

## Чанг Хо Джин: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би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Москва, 1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Об этом сказал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Чанг Хо Джин, приветству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членов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т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комиссии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на вечеру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Он отметил, что:

«... Ввиду нынешн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находятся под некотор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влиянием, одна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озиции,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би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и такое же понимание разделяет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в Вашем лице также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привлечение и поднятие интереса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 России к вопросу мир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за что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Вам».

## В РК развивается отрасль видеоконтен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ъем продаж продукции независим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идеоконтента вырос на 15,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составив 3 млрд 638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7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Экспорт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284 млн 770 тыс.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41,5%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в данной сфере действовали 732 компании, в которых работали более 13 тыс. человек.

KBS World



## '체부라쉬카' 유치원을 찾아 안한연 선생으로부터 한국어를 즐겁게 익히는 아이들

(2면의 계속)

그 당시 사할린 한국교육원을 통해 해마다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연수도 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한 이후 1998년부터 그는 루고위에 제30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최근에 들어 방과후 수업(학생 원하는 경우)을 하면서 유치원에서도 수업을 하였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학교를 그만두었다. 두 교육기관에서 체력적으로 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 교장은 그만두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제가 학교에 안 나가니 학생들이 여기 유치원 놀이터를 찾아와 저에게 '왜 학교에 안 나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힘든편 어쩌겠어요."라고 안 선생이 말하였다.

안 선생은 그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도 꽤 있었다. 제자 중 지금 가르치는 유치원생들의 부모도 있다고 한다.

"한 남아이의 아빠가 제 제자였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느날 료나에게 시를 외우라고 적어 주었는데 시를 너무 잘 읊는 거예요. '료나, 참 잘 했다.'했더니 '아빠랑 같이 시를 외웠어요. 아빠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웠잖아요.'하더라고요."라며 안한연 선생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 그는 유치원 출근길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선다고 한다. 오전 수업이라 아침 6시 40-45분에 출근한다. 전에는 루고위에 동네에 살았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남쪽으로 이사하면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해서 일찍 집을 나선다고 한다.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하는데 그는 8시가 안 되어 이미 유치원에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안 교사에게 정해진 하루 수업시간은 3시간 반이다. 그러나 그는 유치원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특히 한국어와 한민족 문화 관련 행사를 준비할 때 많이 바빠진다. 그리고 아이들과 교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밖에서 같이 놀아주고 함께 뭉들고 있다. 유치원생들은 자꾸 한국말을 들으면서 귀에 익숙해지게 된다.

한인동포가 이번 그룹에서는 아주 적다. 그룹이 30명인데 이번에 많은 아이가 유행성 감기에 걸려서 수업시간을 빠졌다고 한다. 안한연 선생은 "가장 잘 하는 학생

들이 빠졌네요."라면서 이번 수업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됐다.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잘 알려진 '체부라쉬카'유치원은 모스크바 방송을 비롯해 지역 티비에 여러 번 방송이 나가고, 도시의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다. '곰 3마리' 단막극도 하고, 동양 음력설 축제에도 참가하며, 이중언어 교육으로 인정을 받아 여러 발표도 하곤 했다.

유치원 내 활동과 공연, 발표 등 행사가 많다. '이중언어 링'경연, '음악 링'경연, 학부모와 조부모들을 위한 '음력설 행사' 등에서 안한연 선생님의 피땀어린 노력이 잘 보인다. 한 가지 사실은 2013년에 당시 박덕호 사할린 한국교육원장의 협력으로 유치원이 한복 30벌을 기증받았다. 이 한복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며, 안한연 선생이 직접 관리하고, 더럽히면 손세탁도 한다.

"안한연 선생님은 책임감이 아주 높은 분이시고 선하고 착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부지런합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이 보입니다."라고 로자 야누셴스카야 교장이 말하였다.

고급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안한연 선생과 한국어 가르치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유치원 지도부는 이중언어 환경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다. '체부라쉬카'유치원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취재: 배순신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 한자로 본 탐진치(貪瞋痴) 세상

한자는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점에서 고맙습니다. 한자를 사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자를 공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한자에 담긴 생각이나 지혜, 깨달음을 찾아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생각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최근에 불교에 관한 책을 보다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삼독(三毒)에 대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늘 접하는 부분이지만 저에게는 느낌이 잘 안 다가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삼독은 바로 탐진치(貪瞋痴)입니다. 욕심을 내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간단해 보이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인지, 왜 화를 내는 것인지, 어쩌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탐진치의 한자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가만히 나누어 보니 옛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낸 것과 불교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자를 만들고 썼던 사람들의 감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자는 옛 생각의 보물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새롭습니다.

탐(貪)이라는 말은 이제 금(今)과 조개 패(貝)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자의 구성을 보고 저는 무릎을 쳅니다. 패는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 있는 돈에 마음이 가는 게 욕심입니다. 여기에서 돈은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눈앞에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에 얽매어 앞을 보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나는 무엇을 그리 손에 꼭 쥐고, 놓고 싶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것을 남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때로 늘 초조해 하며 때로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성냄의 진(瞋)이라는 말은 목(目)과 진(眞)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성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는 게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글의 한 부분이 여기에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어떤 경우라도 올바르게 보는 마음이 성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언제나 참이라는 생각은 다른 이를 함부로 재단(裁斷)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니 참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참이라고, 나만 참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진'입니다. 이 글자는 눈 목(目) 대신에 입 구(口)를 써서 진(眞)으로 쓰기도 합니다. 나만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음의 치(痴)는 알다(知)와 병들어 기대다(疒)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글자도 묘합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아는 것이 병이라는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게 어리석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렇게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병이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부처께서도 깨달은 척하는 사람의 위험함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병은 치유가 되고 밝아집니다. 그게 바로 지(智)입니다. 밝은 깨달음, 지혜입니다.

저는 탐진치(貪瞋痴) 삼독의 한자를 살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갖고 싶은 것에 얽매지 말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르는 것이 많음을 기뻐하고 열심히 배운다면 이미 깨달음의 길에 선 것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천안지구협의회 박말순 총무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문은수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회장, 이흥구 봉사회 충남협의회 회장, 황종현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부회장과 신동헌 천안 부시장,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 박종덕 천안시 교육장, 이서영 국제로터리 3620지구 총재, 강동복 천안만세운동 기념사업 회장, 김영철 국제로터리 3620지구 충남 청소년연합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서는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 원칙을 김영수 부회장이 낭독하고 유정열 재무는 봉사원 서약을 했다.

이어 '힘들고 외로운 이웃의 벗이 되어 평생을 사랑과 겸손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봉사원들에게 수여되는 '노란 조끼 천사 패'는 사할린 봉사회 리순옥님, 천안봉사회 최문기님, 선거봉사회 이수연님, 께서 수상했다.

'노란 조끼 천사 패'는 만 77세가 되신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고마움과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패이다.

또한, 대한적십자 회장의 우수봉사원 표창 7명,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회장의 우수봉사원 표창 10명,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회장의 외부인사 표창 2명, 충남협의회장 우수봉사원 표창 11명,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회장의 공로패 8명, 천안시장 표창 5명, 천안시의회의 의장상 5명, 국회의원 표창 10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회장 김미수)는 2월 3일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3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단체 사진)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 박종덕 천안교육장이 각각 특별회원증이 전달됐고, 황종현 사업자문위원장은 특별회비 2천만 원과 빵나눔 봉사활동 기금 450만 원을 후원했으며,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특별회원 이서영 총재, 강동복 회장, 김영철 지사장, 김선길 상임위원, 전용자 회장, 박영숙 회장에게도 특별회원증이 전달됐다.

계속해서 100만 원 이하의 특별회원 20명에게도 특별회원 증서가 전달됐다.

또한, 천안지구협의회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재임한 김미수 회장은 "봉사자 여러분의 존재가 있기에 저는 더 큰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선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고통의 현장에서 적십자의 선한 영향력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은수 지사 회장은 "세담족백이란 말을 좋아한다. 남을 위해 일하니 나가 좋아

지더라. 부여군과 백석동에 물난리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수해복구에 일손을 거들면서 어르신들을 살피고, 희망 풍차 바차회 등을 통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늘 행복하다.

봉사의 진정한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랑 물결이 넘실대는 한 저 또한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는 매주 월~금 중식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주 2회 (3일분씩) 서북구 제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반찬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반찬 나눔 봉사, 김장 나눔 행사 등 취약계층에게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효도 관광도 지속해서 실천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충청매일]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изовой денежный фонд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и спонс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предусмотрено множество иных ценных призов. Главным приз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категории "Рыбачий биатлон" среди мужчин станет снегоболотоход,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й Ассоциацие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з ценного приза не останутся в этом году и участницы "женского биатлона" — этот вид состязания впервые появился лиш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сразу получил широкую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ов. В дополнение к денежному призу в размере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получит и приятный ценный подарок, наименование которого пока держится в секрете.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изы в номинациях: "За самую крупную рыбу", "Самому опытному участнику", "Самая колоритная команда", "Женской команде", "Детской команде", "Лучшая группа поддержки".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командном первенстве стартует 7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и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рабочие дни с 10.00 до 18.00, и до 19.00 22 февраля по телефону: 8 (4242)72-25-76, а такж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а сайте.

## 사할린, 은행예금 규모에 따라 러시아 상위 10위 안에 들다

사할린주가 은행예금에 따른 러시아 지역별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사할린 주민의 1인 평균 예금 규모는 30만7천 루블이라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국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주민 예금 규모에 따른 최상위 지역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유지하고 있고, 가장 하위에는 인구시 공화국과 체첸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위의 부유한 지역들 속에 마가단주,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구, 캄차트카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 사할린주, 무르만스크주, 한티 만시스키 자치구도 포함됐다. 통계 기사에 따

르면 이들 지역에서 1인 평균 은행예금 잔액은 28만8천 루블리 - 45만5천 루블리이다. 사할린주는 30만7,400루블리로 8위를 차지했고, 2022년 한 해 동안 예금액이 3.4% 상승했다.

이런 통계분석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과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러시아 일부 지역들에서 높지 않은 예금 규모는 지역의 은행 서비스 시장의 빈약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размеру банковских вкладов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восьм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банковским вкладам.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вклад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307 тысяч рублей.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опубликовали аналитики РИА «Новости».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лидерами по по вкладам населения в банках остались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 конце списка — Ингушетия и Чечня. В десятку наиболее «богатых» регионов также вошли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Камчатка, Чукотка, Сахалинская и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и,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этих регионах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остатки средств в банках находятся в диапазоне от 288 тысяч до 455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восьмую позицию в списке с результатом 307,4 тысячи рублей. За 2022 год прирост вкладов составил 3,4%.

Аналитики составляли рейтинг, исходя из данных Росстата и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Ф.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невысокий размер вкладов в части регионов объясняется слабым развитием местного рынка банковских услуг.

## 9명의 사할린 주민, 2천여 명의 사할린 불법체류자들에게 러시아 체류 문서 조작해줘

사할린의 검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류 등록사업을 조정한 9명의 사할린 주민에 대한 범죄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

다. 불법 이주자들은 불법적 체계를 통해 거주 및 취업의 위조된 허가증과 러시아 거주권을 얻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국 이주민문제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 범외에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이 있는 개인 사업가들과 주민들을 끌어들여 불법이주자들에게 돈을 받고 거주 등록을 해주며, 취업을 알선해주었다. 2019년부터 이 범외자들은 외국에서 온 2,305명에게 러시아에서 합법적 거주를 위한 서류를 조작해 제공하고, 댓가로 450만 루블리 이상을 챙겼다.

범죄자들을 지난해 5월에 경찰이 구속한 가운데 이들 거처를 수색하는 중에 발견된 71만2천 루블리 이상의 현금과 외국인 문서 꾸러미 및 이주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전자기기가 압수되어 현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Девя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легализовали в России более 2 тыс. незаконных мигрантов

Полиция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в отношении девят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овали бизнес по оформлению документов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 помощью криминальной схемы приезжие получали фиктивную прописку и работу, и имели право остаться в России. Подробности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Ф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вовлек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граждан, у которых были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квартиры и частные дома. За деньги их прописывали и устраивали на работу. С 2019 года преступники обеспечили лега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России для 2 305 человек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 заработали более 4,5 млн рублей.

Обвиняемых задержали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ходе обыска в офисном помещении обнаружены и изъяты более 712 тысяч рублей, а также пакеты документов н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 электронные носители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мигрантах. Сейчас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направлено в суд.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